



한국야구위원회(KBO) 구분능 총재(왼쪽)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구단주 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김민성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007

# 이석채회장, 타구단 오너들과 30억 담판

(KT회장)

## KT가입금 100억에서 30억이 된 과정

- 1 KT, 200억 발전기금에 가입금 포함 해석
- 2 11일 이사회서 사장들 돌연 100억 고수
- 3 KT "추가 100억 불가" KBO에 강력 반발
- 4 이석채회장, 타구단 오너들 맨투맨 설득
- 5 17일 총회, 최고위층 지시에 사장들도 OK

10구단 KT의 신규회원 가입금이 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존 9개 구단의 구단주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총회 결과다. 이로써 KT는 야구발전기금 200억원, 신규회원 가입금 30억원, 예치금 1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프로야구에 진입할 권리를 얻었다. 스포츠동아는 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17일 아침 "KT, 10구단 가입금 100억원 내라"라는 단독 보도를 했다. 11일 KT를 10구단 운영주체로 결정했던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가입비까지도 100억원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다. 2011년 9구단 NC의 가입비 30억원의 3배를 웃도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총회는 이사회가 합의한 100억원이 아니라 NC와 똑같은 30억원의 가입비만 받는 조건으로 KT를 10구단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100억원이 30억원으로 줄었을까. 그 긴박했던 과정과 감춰져있던 전말을 스포츠동아가 심층 취재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역시 프로야구 역사에 기록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 ●이사회 이전엔 무슨 일이

이야기의 시작은 KT가 야구발전기금을 200억원으로 설정한 데서 비롯된다. KT는 200억원 안에 가입금이 포함됐다고 해석했다.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리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봤을 터다. 사정을 아는 복수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KBO도 KT의 이런 계산법에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 야구발전기금으로 200억원이나 썼기에 9구단 N

C의 선례에 비해 30억원 선의 가입금이면 될 것이라고 내심 판단한 것이다.

### ●이사회에선 무슨 일이

그러나 11일 이사회에서 KBO의 생각이 낙관론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프로야구 9개구단 사장단은 야구발전기금과 신규회원 가입비는 그 용처가 다르기에 KT가 발전기금으로 200억을 썼다고 가입비를 깎아 줄 이유가 없다는 기본 인식을 가졌다. 오히려 KT가 이 정도로 의욕을 보였으면 가입비로도 더 써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별 이견 없이 10구단 운영주체로 KT를 사실상 승인한 뒤, KT의 신규회원 가입비 문제가 안건으로 떠올랐다. 여기서 A사장이 100억원 얘기를 꺼냈다. 곧바로 B사장, C사장이 적극 호응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구단주 대행을 겸하는 사장들까지 가입비 100억원에 찬성을 했다는 것이다. D사장은 "더 받아야 되는데 100억이면 잡겠다"는 말까지 했다.

동석한 KBO 구분능 총재와 양해영 사무총장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는 전언이다. 구 총재는 말을 머뭇거렸고, 양 총장은 넋지시 "30억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타진을 해냈다. 그러나 곧바로 "30억이면 야구 하지 말라고 해라"는 사장단의 강경한 반발이 나왔다. 구 총재는 이 타이밍에서 가입비 30억 카드를 더 이상 밀고 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바로 이 시점부터 KBO는 우회루트를 떠올린 셈이다. 구단 사장단은 KT의 가입비는 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믿고 자리를 파했다.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절대 다수 사장은 17일 총회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가입비를 100억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사회 이후엔 무슨 일이

KBO는 KT에 가입비 100억원을 낼 수 있는지를 일단 타진했다. 그러나 KBO를 향한 KT의 반발은 격렬했다. KT는 내부적으로 임시 이사회까지 열었다. 여기서 '100억 원을 추가 부담할 바엔 차라리 야구단을 접겠다'는 바람

끝 전술까지 나왔다. 전언이다.

그러나 야구단 운영의지가 강렬했던 KT는 표면적 경쟁 외에 KBO와 '공조'를 띤 읍소책으로 가입비 문제의 돌파를 노렸다. KT의 수장인 이석채 그룹 회장이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했다. 이 회장은 아예 구단 오너들을 직접 공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모 구단 구단주이기도 한 그룹 대기업 회장은 구단 측에 "NC는 가입비를 얼마로 했느냐"고 물었고, "30억원"이라는 대답에 "그걸로 하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KBO와 KT가 원하던 액수까지 낮춘 것이다. KBO도 구 총재가 손수 네트워크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구단 사장은 "총재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다"고 KT의 가입금 30억원을 풀이했다.

### ●총회에선 무슨 일이

17일 총회에 참석한 구단주 대행들 상당수는 사실 야구 외에 바쁜 업무가 많기에 이사회가 정한 KT의 가입금이 30억원인지 100억원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인사가 상당수였다. 이 와중에 가입금 100억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C구단의 구단주 대행이 예상을 깨고 "30억으로 합시다"고 운을 폈다. "그룹 최고위층을 공략하겠다"는 KBO와 KT의 작전이 빛을 본 순간이었다. B구단 구단주 대행이 "말이 되느냐? 이사회에서 정한 100억으로 해야지"라고 반박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안됐다. 예외적으로 총회가 2시간이나 걸리자 구 총재가 30억 카드를 다시 들이밀었고, 순식간에 관철되는 분위기로 돌아갔다.

100억으로 가입금을 정했고, 17일 아침까지도 그렇게 알았던 사장들도 KBO 최종 의결기구가자 그룹 최고위층이 정한 사안이기에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부 사장들은 "구단주 대행까지 겸하는 사장들 좀 취재해 봐라"고 할 정도로 이사회와 총회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 사장들을 향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구 총재는 총회 직후 소외감을 느꼈을 이사회 사장들에게 "많이 양보해줘 미안하고 고맙다"는 전화를 걸었다. 이렇듯 KT의 가입금은 당초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트위터 @matsr121

## ■가입금·예치금·발전기금 용도·납부기한?

가입금 30억→KBO예산(1개월내)  
예치금 100억→3개월내 납부, 5년뒤 환불  
발전기금 200억→아마야구 지원기금(1년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9개 구단은 KT를 10번째 구단으로 품었다. 이제 남은 것은 KT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입금, 예치금, 야구발전기금까지 포함한 330억원의 납부다.

330억원은 프로야구 1개 구단 1년 운영비와 맞먹는다. 액수가 큰 만큼 납부 기한은 모두 차이를 뒀다. KT는 30억원으로 책정된 가입금은 10구단 최종 승인부터 1개월 이내에 내야한다. 100억원의 예치금은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가장 많은 200억원의 야구발전기금은 1년 내에 전담해야 한다.

쓰임도 모두 다르다. 가입금 30억원은 KBO의 기금으로 KBO와 10개구단이 공동 관리한다. 100억원의 예치금은 KBO가 5년 동안 보관한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100억원을 예치금으로 낸 제9구단 NC의 전례가 반영됐다. KT와 수원은 앞으로 5년 이내에 2만5000석 이상의 전용구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프로야구단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예치금이다"고 설명했다. 공사 중인 수원위장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KT가 5년 이상 정상적으로 팀을 운영할 경우 예치금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한편 200억원의 야구발전기금은 프로야구의 뒷줄인 아마추어 야구의 지원과 중·고교 팀 창단 등에 쓰이게 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 “선의의 경쟁 부영 전복에 감사”

이석채 회장 “함께 유치전 펼치며 많은 생각”

KT 이석채 회장(사진)은 10구단 유치 경쟁을 벌였던 부영과 전복에 위로의 말과 함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17일, “우리가 10구단 주체로 당연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다가 부영-전복이 동참하면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경쟁하다 보면 애착심이 생긴다. 승자 패자를 떠나 부영과 전복이 (우리로 하여금)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기쁘기에 앞서 송구스럽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분명한 것은 전복과 부영이 경쟁에 참여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야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고 했다. 부영-전복이 ‘선의의 경쟁자’로서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양해영 총장도 “10구단 유치 경쟁에서 패한 전복-부영에 위로를 전한다”며 “전북 지역 야구 인프라가 (예정대로)확충되면 유소년 야구대회, 퓨처스 리그 올스타전 등 KBO 주관 경기를 전북에서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 dhoney@donga.com 트위터 @kimdhoney



## KBO총회 만장일치 찬성...10구단 KT 최종승인

KT, 2014년 2군리그 2015년 1군 목표 창단작업 양해영 사무총장 “실행위서 드래프트 지원 논의”

마침내 한국 프로야구가 10구단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구분능 총재와 9개 구단주(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경기도 수원시를 연고로 한 KT를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기업으로 최종 승인했다. NC 김택진 구단주만 불참, 구 총재에게 의결권을 서면 위임했고 총회는 만장일치로 K

T를 신규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앞으로 KT는 2014년 퓨처스(2군)리그~2015년 1군 진입을 목표로 창단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총회는 KT를 받아들이면서 신규회원 가입금으로 30억 원을 책정하고, 예치금으로 100억원을 확정했다. 부영-전복과의 10구단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KT가 이미 약속한 야구발전기금 200억원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총회 내용을 브리핑한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앞으로 신생 구단 지원책에 따라 KT의 창단을 도울 예정임을 밝혔다. 양 총장은 “올해 신인지명에서 연고 1차지명이 부활하

는 만큼 드래프트 지원 방안은 단장 모임인 실행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약상 KT는 2년간 드래프트에서 신인선수 2명 우선 지명권을 얻고, 각 구단에서 보호선수(20명)를 제외한 1명씩을 데려올 수 있다. 1군에 가세하면 2년간 외국인 선수를 3명 보유하고 같은 기간 1군 엔트리 등록인원을 다른 팀(26명)보다 1명 증원할 수 있다. 김도환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양해영 사무총장이 17일 KBO 총회가 끝난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민성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007